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26년 1월 글로벌 투자전략(Update)

1월 효과, 역사적 사상 최고치 행렬

- 1월 효과 지속. 주요국 상황, Risk-On 국면 조성에 긍정적 투자환경
- 1월 하반월 진입 전 불거진 3가지 저해요인, 일시적 변동성 요인
- 상승 과정 속, 숨고르기 국면은 비중확대 기회. 미국, 반도체국 최선호 투자처

[투자환경] 산타가 지난 간 자리, 1월 효과가 차지한다. AI, 반도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 긍정적 투자 환경 지속

1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는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행렬에 동참 중이다. 무역 신장세 둔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야기되는 비용 상승 불구,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자국책 강화가 핵심동인이다. 무역 및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며 경제활동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올해 1월 효과 지속에 이어 향후 증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요국 상황도 Risk-On 국면 조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돈로 독트린 현실화 불구,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및 25.4/4분기 실적 시즌 기대가 완충 요인으로 작용. **[유럽]** 안정된 물가와 완화된 정책의 파급 효과가 긍정적 기대로 연결. **[일본]** 다카이치 총리, 2월 중순경 조기 총선(중의원) 검토가 다카이치 트레이드 효과(확장적 재정정책, 핵심 산업 육성) 연출. **[중국]** 국영보험사(자사주 매입), 대형 상장사(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적 정책 및 AI 기업 성장 기대 부각, **[대만, 한국]** 마이크론 호실적(26.1/4분기), 범용 D램의 공급자 우위 시장 조성이 공격적 가격 인상 정책으로 연결되면서 AI · 반도체 낙관론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투자전략] 1월 효과, 주요 증시의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견인. 증시 상승 과정 속 숨고르기 국면은 비중확대 기회. AI 혁명을 주도하는 미국과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반도체국 최선호 투자처

1월 하반월 진입을 앞두고 불거진 3가지 저해요인(1. 美 돈로 독트린 공식화, 2.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3. 美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은 하루이틀 사이의 변동성 요인일 뿐, 앞으로 나아가려는 증시 흐름에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해요인1: 美 돈로 독트린] 베네수엘라 공습에서 확인했듯이 중국, 러시아, 그 외 남미국과 심각한 갈등 제한. 그린란드 사태 등 향후 미국의 국제 질서 리드를 위한 패권 강화에 대한 반미연대 유명무실. 이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력도 제한. **[저해요인2: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국제비상경제권법 근거 관세 무효화(10% 기본관세, 상호관세, 팬타닐 관세)시, 또 다른 관세 부과 수단 보유(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미해당). **[저해요인3: 美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여론 불구, 1월 중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1월 임기가 끝나는 마이런 이사 자리를 대체하며, 연준내 트럼프 인선 인물 장악력 확대. 금융시장, 올해 더 완화적 통화정책 행보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25.12월 기준 美 고용추세(-2.2만명)는 23. 8월 이후 평균 증가폭(+14.3만명)에서 감소 전환해, 점진적인 노동시장 냉각 추세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12월 CPI 등 예상치 부합(또는 하회)하는 물가 하락을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해석하는 현 금융시장 반응 감안 시 1월 FOMC 기점으로 올해 더 완화적인 연준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기대도 1월 효과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어줄 것이다. 25.4/4분기 美 어닝시즌(S&P500 EPS 8.3% YoY 이하)도 IT 섹터(25.9%) 주도의 실적 호조가 기대돼, 증시 상승 과정 속 숨고르기 국면은 비중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

Issue Radar: 美 베네수엘라 공습, 美 차기 연준 의장 지명, 美 1 월 FOMC

[美 베네수엘라 공습 / 1 월] 단기, 지정학적 긴장 요인. 금융시장 영향 제한

- 미군은 1.3일 오전 2시(베네수엘라 현지 시간)베네수엘라 공습 후 마두로 대통령 축출.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 통치 입장 발표. 중국, 러시아 등 다수 국가들, 공습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 피력. 미국의 금번 공습 작전 목적은 마약 카르텔 소탕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제, 정치 측면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
- 경제 측면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및 가스 자원 통제 강화. 향후 원유 공급 증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제유가 안정 도모. 정치 측면에서는 남미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영향력 축소.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영향력을 확대해온 상황. 미군 공습의 신속한 성공, 중국, 러시아, 그 외 남미국과 심각한 갈등도 제한. 단기 지정학 긴장 고조에 그칠 전망

[美 차기 연준 의장 선임 / 1 월 중] 올해 적극적 통화완화 기대. 현직, 차기 연준 의장간 불편한 동거 시작

- 트럼프, 1월 중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계획. 지난해 12월 연준 개보수 비용 책정을 둘러싼 파월 의장에 대한 소송 문제 거론. 이는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올해 5월 이전에 물러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를 충족시킬 후임자를 예정보다 더 일찍 등판시키려는 구상
-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트럼프와 측근들로부터 제롬 파월에 이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 해싯은 트럼프와 금리 추가 인하를 포함,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가 일치. 트럼프, 1월 중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시, 금융시장은 현 파월 연준의장 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의 성향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 이를 통해 향후 적극적 통화완화 기대를 주식시장은 선반영해 나갈려고 할 것

[美 1 월 FOMC / 1.27~28 일 현지시각] 1 월 발표되는 고용, 물가 지표 결과가 금리 인하 여부 결정

- 26.1.14일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26.1월 금리 동결 확률은 97.2%로 한 달 전(75.6%)와 비교해봐도 금리 동결에 무게. 25.12월 금리 인하 불구, 연준이 향후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을 경계하며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 반영. 25년 CPI 상승률은 4월 2.3%(YoY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9월 3%로 반등한 뒤 12월에는 2.7%로 다시 둔화. 실업률은 12월 4.4%로 상승해 23년 3.4%보다 높은 수준 유지
- 1월 발표될 지난해 12월 경제 지표의 시장 기대 충족 여부에 따라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7일 구인·이직보고서(JOLTS) 공개, 9일 12월 고용 지표, 13일 12월 CPI 발표. 1월 중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현 파월 연준 의장의 심경 변화 시 1월 금리 인하 소수 의견도 부각될 것

자료: Googl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 월 중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

일자	국가 / 지역	주요 지표	시장 영향	기간	단위	전기치	예상치 (발표치)	대비
첫째주								
1.1	한국	수출 / 수입	▪ 반도체 중심 수출 개선세 지속 여부	12 월	% YoY	8.0 / 1.1	13.4 / 4.6	▲/▲
1.3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	▪ 美 돈로 독트린 공식화 선언					
둘째주								
1.5	중국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 신규 수주 둔화, 고용 감소, 투입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	12 월	%	52.1	52.0	▼
1.6	미국	ISM 제조업지수	▪ 제조업 부진, 팬데믹 이후 지속. 확대 해석 경계	12 월	%	48.2	47.9	▼
	미국	CES 2026(~9 일)	▪ 휴머노이드 로봇 부각					
1.7	유럽	CPI / 근원	▪ ECB 물가안정목표(2%) 상회. 금리 동결 지속 요인	12 월	% YoY	2.1 / 2.4	2.0 / 2.3	▼/▼
1.8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	▪ 팬데믹 이후 美 경제 서비스업 주축 성장	12 월	%	52.6	54.4	▲
1.9	중국	CPI / PPI	▪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12 월	% YoY	0.7 / -2.2	0.8 / -1.9	▲/▲
셋째주								
1.13	미국	CPI / 근원	▪ 물가, 예상치 하회 시 인플레 우려 완화로 받아들이는 시장 해석 지속	12 월	% YoY	2.7 / 2.6	2.7 / 2.6	- / ▲
1.14	미국	PPI / 근원	▪ 기업,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 다만 가격 인상폭 제한 상황	11 월	% YoY	- / -	2.7 / 2.7	- / -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판결	▪ 국제비상경제권법 근거 관세 무효					
1.15	한국	금통위	▪ 주택 가격 및 물가 상승 제한을 위한 선제적 금리 동결 선택 전망	1 월	%	2.5	2.5	-
넷째주								
1.19	중국	산업생산 / 소매판매 / 고정자산투자	▪ 산업생산, 소매판매 낮은 성장세.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12 월	% YoY	4.8 / 1.3 / -2.6	5.0 / 1.1 / -3.1	▲/▼/▼
	중국	GDP	▪ 수출 부진 영향, 전분기 대비 둔화 예상	4/4 분기	% YoY	4.8	4.5	▼
1.20	중국	LPR 1 년 / 5 년	▪ 3/4분기 GDP 결과, 금융 완화 정책 속도 빨라질 조건	1 월	%	3.0 / 3.5	3.0 / 3.5	- / -
1.22	미국	GDP 확정치	▪ 관세 부과, 소비자심리 위축 불구 견고한 성장 흐름	3/4 분기	% QoQ	4.3	4.3	-
	미국	PCE/근원	▪ 지난해 셧다운 종료 후 첫 발표. CPI에 대한 시장 해석 동일	11 월	% YoY	-	-	-
1.23	일본	CPI / 근원	▪ 3%대로 올라선 물가. 쌀류, 커피원두, 초콜릿, 숙박료, 에너지 등 가격 상승세	12 월	% YoY	2.9 / 3.0	- / -	- / -
	일본	BOJ 금정위	▪ 기조적 물가상승률 무게 시, 금리 동결 요인	1 월	%	0.75	-	-
다섯째주								
1.29	미국	FOMC(27~28 일)	▪ 금리 동결 무게. 하지만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 계기	1 월	%	3.75	3.75	-
1.30	유럽	GDP 속보치	▪ 역내 경제 중심의 남유럽, 동유럽 국가의 견조한 수요 성장 영향	4/4 분기	% QoQ, % YoY	0.3 / 1.4	- / -	- / -

기준일: 26. 1. 14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